

##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

우 주 영\*\*

나사렛대학교 심리재활학과 교수

### 《 요 약 》

정신병리를 일으키는 여러 요인에 대한 탐색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애착은 아기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사회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패턴이 되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에 따라 성격특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314명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면성인성검사(MMPI)를 실시하여 전문가들이 정상 집단(236명)과 임상집단(78명)으로 선정하여 나누었다. 연구 도구는 Brennan (1998)에 의해 개발된 친밀관계경험척도(ECRS; 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Scals)을 오진아(2007)가 수정, 보완한 것과 김영환 등(1989)에 의해 제작된 MMPI를 사용하였다. 연구 분석은 분산분석(ANOVA)으로 성격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Scheffe 방법으로 사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상집단에서는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간의 우울증, 편집증, 강박증에서 차이를 보였고, 내향성에서는 안정형과 다른 애착유형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임상집단에서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간의 우울증, 편집증, 강박증에서의 차이를 보였고, 정신분열증에서 집착형과 두려움형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편집증과 내향성에서는 안정형과 두려움형, 집착형의 애착유형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모두에서 우울증, 강박증, 편집증, 내향성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간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 임상집단에서는 정신분열증척도에서 애착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불안정 애착 유형중에서도 두려움형 애착유형이 정신병리적 성격특성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치료전략을 세울 때 애착유형의 근거 의미를 시사한다.

주제어 : 애착유형, 친밀관계경험척도(ECRS), 성격특성

\* 본 논문은 2009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wjy0207@kornu.ac.kr)

## I. 서 론

애착이론의 창시자인 존 보울비(Edward John Mostyn Bowlby)는 대학 재학 중 자원 봉사하던 곳에서 만난 비행청소년의 공통점 중 하나가 어린 시절 돌봐 주던 이와 분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정신과 의사가 되고 정신분석을 받고 환자를 만나는 동안 평생의 주제가 되었다고 한다(Holmes, 1993). 하지만 그 당시 안나 프로이트조차도 ‘찬장 사랑(cupboard-love)’이라고 부를 만큼 ‘아기는 먹을 것을 주는 엄마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으로 엄마의 상실로 인해 아이는 고통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았다(Karen, 1998). 그러나 현실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문제가 불행하고 혼란했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보울비는 동물행동학에서 연구해 왔던 애착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아기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토대로 애착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보울비와 함께 연구해 온 에인스워스(Ainsworth)는 ‘안전기지(secure base)’라는 용어를 통해 호기심과 탐색을 위한 본부로 활용되며 위험을 느낄 때 안전한 안식처가 있음을 확신하면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애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를 밝혔다(반건호, 2008). 또한 아이의 애착이 잘 형성 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낯선상황실험(Strange Situation Procedures; SSP)’을 고안해 내어서 애착의 형태와 질을 분류하였고 정서장애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진단 및 치료에 사용하여 애착연구가 성격발달과 정신병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켜주고 많은 임상적 관련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 이후 여러 애착 형태를 측정하는 많은 도구들이 소개되었는데, 성인의 애착 형태와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면담법인 ‘성인애착면담(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이다. AAI에서는 애착 특성을 자율형(autonomous), 거부형(dismissing), 집착형(preoccupied), 그리고 미해결형(unresolved)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AAI는 의식적으로 자각하기 어려운 마음 상태를 부분적으로 평가하며 성인의 특징적 방어 방략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Hess, 1999; Shaver & Mikulincer, 2002). 또한 어머니들의 면접시 나타난 이야기 특성과 유아가 ‘낯선 상황’에서 보인 애착 특성 사이에서 놀라운 일치성을 발견하였다고 한다(Fonagy, Steele, & Steele, 1991). 또한 성인애착 연구에서 실험과 조사 연구에 적합한 자기보고형 질문지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가 개발되었으며(Hazan & Shaver, 1987) 안전형, 불안-양가형, 및 회피형의 3가지 유형을 기술한 질문지를 제시해주고 가장 의미있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나타내는 특징을 가장 잘 기술하는 한 유형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 질문지의 단순함을 보완하여 Collins와 Read(1990)는 18문항의 질문지인 성인애착척도

를 고안하였는데, ‘친밀성에 대한 편안함(친밀)’, ‘타인에게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의존)’, ‘유기공포(불안)’으로 나누었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자기가 사랑과 보호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자기 모형(model of self)과 타인이 자기에게 사랑과 보호를 기꺼이 제공할 것 같은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타인 모형(model of other)에 의해 안전형(security), 집착형(preoccupation), 거부형(dismissing-avoidance) 및 두려움형(fearful-avoidance)의 4가지 애착유형을 개념화하였다. 이후 이 도구의 변형이나 확장을 통해 많은 측정 도구가 개발되었으나 너무 유사한 것들이 생기면서 혼란을 겪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1998년 Brennan와 그의 동료들이 모든 애착유형 측정 도구들을 수집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친밀관계경험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Scale; ECRS)질문지를 개발하였다. 그것은 각각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측정하는 두 개의 차원으로 18문항 척도로 구성된다. 이 척도문항들은 친밀관계에서의 행동과 감정에 초점을 두게 되며, 두 차원을 교차시키면 4개의 유형이 산출된다. 즉 낮은 불안과 낮은 회피가 특징인 ‘안정형’, 높은 불안과 낮은 회피가 특징인 ‘집착형’, 낮은 불안과 높은 회피가 특징인 ‘거부형’, 그리고 높은 불안과 높은 회피를 보이는 ‘두려움형’으로 나누어진다. ECRS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AAI의 비실용적인 면을 보완하고 성인의 관계 갈등 및 감정에 대해서는 좋은 측정법이라고 평가(Mikulincer & Shaver, 2005; Westen, Nakash, Thomas, & Bradley, 2006; 문형춘, 2007)받고 있다.

성인애착의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250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 성인애착 유형은 안정형 성인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보다 광범위한 만성적 통증(pain)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Davies, Macfarlane, McBeth, Morriss, & Dickens, 2009).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나라들과 횡단연구에서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따라서 치료전략을 세울 때 애착유형에 대한 근거를 고려해야 하며 광범위한 만성적 신체 통증을 호소하는 위험군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지와 교육을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아동기의 역경(adversity)은 아동의 관계적 세계를 바꾸고 안정된 애착형성을 억제한다고 한다. 불안정애착은 전생애를 걸쳐 정신건강을 손상시키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의 질병에도 기여한다. 즉,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심리적 시스템의 회복과 각성을 방해하고,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와 면역역과 심리학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관계 스타일과 다양한 건강한 행동과도 관련되어 있고, 알코올과 니코틴 중독과 관련된 외현화된 장애를 가진 위험군의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보고되고 있다(Maunders & Hunter, 2008). 그리고 애착유형과 아동 청소년의 정신역동 심리치료 결과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71명의 정신장애를 겪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 정신역동치료를 하였다. 그 결과에서 불안정 애착을 가진 대상보다 안정적 애착을 가진 대상에서 좋은 심리치료의 결과를

나타내었다(Stefini, Geiser-Elze, Hartmann, Horn, Winkelmann & Kronmuller, 2009).

또한 성인애착, 증상과 대인관계적 기능 사이의 관련성을 96명의 정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불안정적인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애착을 평가하였다. 회피애착은 편집증과 관련성이 높았고, 애착불안이 높은 집단과 회피와 대인관계적 문제 사이의 관계성은 지지되었고 회피애착은 치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었다(Berry, Barrowclough, & Wearden, 2008). 다른 측면에서 성인애착, 대인간문제와 자살행동유형간의 관계를 정신병환자 406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불안과 회피애착유형은 대인간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대인간 문제는 애착유형과 자살행동 유형간의 관련성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pp, Morse, Yaggi, Reynolds, Reed, & Pilkonis, 2008). 따라서 병인학적 접근, 치료과정 및 개입의 견지에서 대인간 문제 행동의 유형별 중요한 구별점을 제시한다. 또한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방식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가 있는데, 19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안정형 집단은 통제된 분노의 내현화 점수가 가장 높았고, 30-40대 집단이 10-20대 집단에 비해 경험되는 분노를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애착유형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부정적 감정에 대한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세대간 모자관계의 애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수미, 현명호, 윤미숙, 2009).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애착, 특성분노 및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간의 관계와 불안정애착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대학생 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외상은 애착유형, 특성분노수준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애착도 특성분노 수준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특히 애착유형 중 두려움형은 분노억제 뿐만 아니라, 분노표출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이지영, 손정락, 2009). 즉 정서적 외상은 불안정 애착에 영향을 주며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유형과 신체형 환자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134명의 정상집단과 30명의 신체형 환자간의 비교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신체형 환자는 정상집단보다 불안한 애착유형을 보였고, 불안한 애착은 부모, 정서적불안정성과 관련성이 있었다(김용희, 송지영, 반건호, 김종우, 신용선, 2005). 또한 대인관계의 불신은 신체화 장애의 의미있는 부분이며 불안정형 애착 패턴은 신체화 현상에 대해 의미있게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된다.

이렇듯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보면 애착유형에 대한 근거가 매우 중요하며 광범위한 만성적 고통을 호소하는 위험군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지와 교육을 해야함을 강조하여 있다. 또한 애착 유형은 성공적인 정신치료의

중요한 준거와 지표가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 정신병의 심각성의 예측 지표 등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애착유형과 정신병리 및 성격특성에 대한 단일차원의 보고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의 하위 영역별로 애착 유형에 따라 성인기 이후의 정신병리를 다층적이고 심도 깊게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8년 Brennan와 그의 동료들이 많은 애착 평가 도구를 요인분석하여 만든 ECRS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다면성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이하 MMPI)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MMPI는 임상장면에서 정신병을 판별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적, 신경증적, 정신병적 경향성 등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하다(양익홍, 최명구, 1997; Merrit & Balogh, 1994). 본 연구에서는 Brennan의 ECRS의 애착유형에 성인애착 유형을 나누었고 그에 따른 MMPI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에 대한 차이를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정상집단에서 성인애착유형 따라 성격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2. 임상집단에서 성인애착유형 따라 성격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8월 3월부터 6월말까지 N대학교 1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참여를 허락한 314명을 대상(정상집단 236명; 임상집단 78명)으로 친밀관계경험척도(Brennan, 1998; 오진아, 2007)와 MMPI(김영환 등, 1989)를 실시하였다. MMPI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집단은 Merrit & Balogh(1994)와 김중술(1996)의 기준을 참조하여 상담심리학 박사 1명과 심리학 박사과정 2명의 전문가들이 선정하였다. 1) 명확한 정상 프로파일은 모두 65점 이내, 35점 이상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였다. 2) 임상적으로 비정상적 프로파일은 10개의 내용척도 중 최소한 하나의 T점수가 70점 이상, 30점 이하의 프로파일로 정의하였다. 3) 불명확한 프로파일은 한두 가지 척도의 T점수가 60점 이상이지만 70점 이하인 프로파일은 전문가의 협의에 의해 나누었다. 대학생들은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 독립 욕구가 강한 반면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이 증가된다. 또한 아직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새로운 인관관계를 통해 성장기 자신의 행동양식을 반추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자중 정상집단은 236명(남 53명, 여 183명), 일반집단 78명(남 24명, 여 54명)이며 자세한 연구 대상 집단의 배경정보는 <표 1>과 같다. 또한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전에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 각각의 성인애착 유형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특성 (N=314)

변인	구분	정상집단 (n=236)	임상집단 (n=78)
성별	남	53(22.5%)	24(30.8%)
	여	183(77.5)	54(69.2%)
나이		18.4(평균)	18.9(평균)

<표 2> 사례 전체 애착유형의 분포

	애착유형			
	안정형 사례수(백분율)	집착형 사례수(백분율)	거부형 사례수(백분율)	두려움형 사례수(백분율)
정상집단(n=236)	76(32.2%)	52(22.0%)	58(24.6%)	50(21.2%)
임상집단(n= 78)	15(19.2%)	17(21.8%)	15(19.2%)	31(39.7%)
전 체(N=314)	91(29.0%)	69(22.0%)	73(23.2%)	81(25.8%)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 유형의 분포는 정상집단에서 안정형 76명(32.2%), 집착형 52명(22.0%), 거부형 58명(24.6%), 두려움형 50명(21.2%)이었다. 안정형 애착유형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불안정애착유형에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임상집단에서는 안정형 15명(19.2%), 집착형 17명(21.8%), 거부형 15명(19.2%), 두려움형 31명(39.7%)으로 두려움형 애착유형이 가장 사례수 분포가 많았다. 그 나머지 애착유형에서도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등(1998)이 제안했던 ‘애착의 자기보고형 측정에 관한 통합적 개관’에서 소개한 친밀관계경험척도(ECRS)를 오진아(2007)가 수정, 보완한 것을 본 연구자가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금까지 자기보고애착 측정 자료를 요인분석하여 회피, 불안 특성에 상응하는 두 가지 본질적인 독립요인을 산출하였고, 대상을 두 가지 요인의 점수를 4개의 그룹으로 근접시켰을 때 4개의 그룹은 애착의 4가지 유형이 상응되었다. 즉 회피차원과 불안차원이 모두 낮으면 안정형, 회피차원이 높고 불안차원이 낮으면 거부형, 회피차원이 낮고 불안차원이 높으면 집착형, 회피차원과 불안차원이 모두 높으면 두려움형으로 분류된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회피차원 .94, 불안차원 .91로 보고되었고(Brennan et al, 1998), 국내에서는 오진아(2007)이 변안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산출된 Cronbach  $\alpha$  계수는 회피차원 .78, 불안차원 .87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3>와 같다.

<표 3> 측정 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변인구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점수범위	신뢰도
성인애착	회피	1, 3*, 5, 7, 9, 11, 13, 15, 17, 19*	18	1-5 5점 척도	.78
		21, 23, 25*, 27*, 29*, 31, 33*, 35*			
성인애착	불안	2, 4, 6, 8, 10, 12, 14, 16, 18,	18	1-5 5점 척도	.87
		22*, 24, 26, 28, 30, 32, 34, 36			

\*역 채점 문항

MMPI는 경험에 기초된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임상장면에서 정신병리를 감별하고 정서적, 성격적 문제를 탐지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객관적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MPI척도는 김영환(1989)등이 재표준화한 566문항으로 된 신판으로 제작된 것이며 OMR방식으로 채점되었다. 이것은 정신과적 진단을 위한 분류 검사이지만 정상인의 행동설명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반적 성격특성에 관한 유추도 가능하다(김중술, 1996)고 본다. 미국에서 기존의 MMPI에 타당도 척도 추가, 재구성된 임상척도, 내용척도, 새로운 보충척도 등을 보완하고 개발하여 MMPI-2(1989)가 출간되었고, 2005년에 한국판 MMPI-2가 출간되었다. 그러나 원래의 검사와 동일한 타당도 척도와 임상적 척도체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신병리적 경향을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우주영, 2008). 피험자는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하며 각 반응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10가지의 임상척도와 그 사람의 검사태도를 측정하는 4가지의 타당도 척도에 따라 채점된다. 국내판 MMPI의 신뢰에 관하여 임영란과 안창일(1997)은 한국형 MMPI 내용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alpha$  계수가 정상인 집단에서 .68-.78, 대학생집단에서 .65-.87, 정신과 환자집단에서 .74-.92의 분포를 보인 결과를 제시한바 있다.

### 3. 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애착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았다. 둘째, 성인애착에 따른 성격특성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임상척도만을 분석 자료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4개의 타당도 척도는 연구 대상을 표집하여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을 나눌 때 참조자료로 활용하였다.

## Ⅲ. 결 과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에 차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사후비교분석 결과표는 <표 4>, <표 5>와 같다. 첫째, <표 4>에서 제시한 정상집단에서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성인애착 유형과 우울증(Depression; 이하 D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 232)=4.48, p<.01$ . 사후검증 결과 안정형 애착보다 두려움형 애착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애착 유형과 편집증(Paranoia; 이하 Pa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 232)=4.95, p<.01$ . 사후검증 결과 안정형 애착보다 두려움형 애착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인애착 유형 모두와 강박증(Psychasthenia; 이하 Pt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 232)=8.68, p<.001$ . 사후검증 결과 안정형, 집착형, 거부형, 두려움형 애착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애착 유형 모두와 내향성(Social Introversion; 이하 Si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 232)=18.42, p<.001$ . 사후검증 결과 안정형과 두려움, 안정형과 집착형, 안정형과 거부형, 집착형과 두려움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정상집단에서 애착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의 평균(표준편차) 및 사후비교분석

	집단(n=236)				분석	
	안정 <sup>a</sup>	집착 <sup>b</sup>	거부 <sup>c</sup>	두려움 <sup>d</sup>	F	사후
Hs	48.46(6.92)	48.44( 9.00)	48.32( 8.40)	48.14(8.82)	.01	
D	43.47(7.61)	47.17( 8.75)	45.87( 8.71)	48.84(8.99)	4.48**	1 < 4***
Hy	47.75(7.76)	46.28( 9.28)	46.03( 9.06)	46.08(8.19)	.62	
Pd	45.52(9.76)	46.00( 8.87)	44.25( 9.00)	47.08(9.22)	.86	
Mf	47.10(8.17)	50.19( 9.01)	48.03(10.68)	50.84(8.27)	2.28	
Pa	41.65(8.36)	46.36(11.36)	42.37( 9.36)	47.06(8.95)	4.95**	1 < 4**
Pt	42.92(6.98)	47.82(7.97)	43.36( 7.67)	48.36(7.32)	8.68***	1 < 4***, 2 < 4** 3 < 4***, 2 > 3***
Sc	40.88(6.60)	43.63(10.10)	50.36(67.80)	46.94(7.45)	.91	
Ma	47.89(9.61)	49.55( 9.65)	45.51( 9.63)	49.96(9.71)	2.41	
Si	41.65(9.04)	48.01( 9.22)	48.86( 8.92)	53.06(7.63)	18.42***	1 < 2***, 1 < 3*** 1 < 4***, 2 < 4*

\* $P < .05$ , \*\* $P < .01$ , \*\*\* $P < .001$ , <sup>a</sup> $n=76$ , <sup>b</sup> $n=52$ , <sup>c</sup> $n=58$ , <sup>d</sup> $n=50$   
 Hs → 건강염려증 D → 우울증 Hy → 히스테리 Pd → 반사회성 Mf → 남성-여성성  
 Pa → 편집증 Pt → 강박증 Sc → 정신분열증 Ma → 경조증 Si → 내향성  
 1 → 안정; 2 → 집착; 3 → 거부; 4 → 두려움

둘째, <표 5>에서 제시한 임상집단에서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성인애착 유형과 우울증(Depression; 이하 D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 74)=4.84$ ,  $p<.01$ . 사후검증 결과 안정형 애착보다 두려움형 애착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애착 유형과 편집증(Paranoia; 이하 Pa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 74)=8.75$ ,  $p<.001$ . 사후검증 결과 안정형 애착과 집착형, 안정형과 두려움형, 거부형과 두려움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성인애착 유형과 강박증(Psychasthenia; 이하 Pt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 74)=3.87$ ,  $p<.05$ . 사후검증 결과 안정형 애착보다 두려움형 애착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애착 유형과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이하 Sc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 74)=4.80$ ,  $p<.01$ . 사후검증 결과 집착형과 두려움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성인애착 유형과 내향성(Social Intro

version; 이하 Si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 74)=6.98, p<.001$ . 사후검증 결과 안정형 애착과 집착형, 안정형과 두려움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임상집단에서 애착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의 평균(표준편차)및 사후비교분석

	집단(n=78)				분석	
	안정 <sup>a</sup>	집착 <sup>b</sup>	거부 <sup>c</sup>	두려움 <sup>d</sup>	F	사후
Hs	50.46(11.65)	49.00(10.83)	55.86(14.76)	55.96(10.69)	1.81	
D	41.33(12.72)	49.35(14.29)	52.40(14.30)	56.25(10.75)	4.84**	1 < 4*
Hy	49.26(14.01)	47.88(10.06)	53.46(16.43)	54.48(10.35)	1.34	
Pd	48.60( 7.92)	46.52(11.47)	50.06(13.37)	56.00(12.09)	3.00*	
Mf	55.46(10.02)	50.00(11.74)	54.93(13.12)	49.93(11.17)	1.28	
Pa	42.00(15.94)	53.88(12.75)	42.26( 9.73)	57.00( 9.42)	8.75***	1 < 4*, 1 < 2*, 3 < 4*
Pt	45.13(11.76)	50.23(12.30)	49.60(11.56)	56.38( 9.75)	3.87*	1 < 4*
Sc	46.33(13.18)	44.64(12.00)	49.86(14.29)	56.54( 9.62)	4.70**	2 < 4*
Ma	54.73( 8.88)	51.94(14.01)	50.20( 8.83)	52.67(10.78)	.44	
Si	39.53( 9.70)	50.94(10.57)	46.33(14.00)	55.03(10.65)	6.98***	1 < 4*, 1 < 2*

\* $P < .05$ , \*\* $P < .01$ , \*\*\* $P < .001$ , <sup>a</sup> $n=15$  <sup>b</sup> $n=17$ , <sup>c</sup> $n=15$ , <sup>d</sup> $n=31$   
Hs → 건강염려증 D → 우울증 Hy → 히스테리 Pd → 반사회성 Mf → 남성-여성성  
Pa → 편집증 Pt → 강박증 Sc → 정신분열증 Ma → 경조증 Si → 내향성  
1 → 안정; 2 → 집착; 3 → 거부; 4 → 두려움

따라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서 각각의 비교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그 결과 첫째, 정상집단에서는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간의 우울증, 편집증, 강박증에서 차이를 보였고, 안정형 애착보다 두려움형 애착이 높게 나타났다. 내향성에서는 안정형과 다른 애착유형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임상집단에서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간의 우울증, 편집증, 강박증에서의 차이를 보였고, 편집증과 내향성에서는 안정형과 두려움, 집착형의 애착유형과 차이를 보였다. 특징적으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모두에서 우울증, 강박증, 편집증, 내향성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임상집단에서만 정신분열증 척도에서 집

착형과 두려움형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불안정 애착 유형중에서도 두려움형 애착유형이 정신병리적 성격특성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치료전략을 세울 때 애착유형의 근거 의미를 시사한다.

#### IV. 논의 및 결론

과거 개인중심의 정신분석적 이론과 달리 상호작용 및 엄마-아기 직접 관찰 등이 애착 이론의 특징이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엄마와 아동의 애착상태의 일치률로 70-80% 정도를 보이고 있어(Hazan, & Shaver, 1987) 영아기에서 발견된 애착양식과 대략적으로 동일한 성인 애착 양식을 발견함으로써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안정적 아동들 가운데 75%는 어머니들이 안정적-자율적으로 평가된 반면, 회피적 아동의 어머니는 주로 무시형에 속했으며 저항형 아동들의 부모는 대개 집착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착이론은 유아는 물론 유아-부모관계 개선에 응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기 이후의 성격특성과의 대인관계 패턴이 되는 표상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애착 유형에 따라 성격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집단에서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간의 D 척도(우울증)에서 차이를 보였고 사후 검증 결과 두려움형이 안정형 애착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안정형 애착 유형의 사람보다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나에 대해서 거부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두려움형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거나 거부될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휘숙(1997)연구에서 두려움형의 사람들은 타인과 친밀성을 바라는 동시에 상처를 받을까봐 혹은 실망을 하게 될까봐 대인관계를 회피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22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집착형의 애착 유형이 지나친 성취지향성과 타인 의존성 요인을 거쳐 우울증상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권정혜, 1998), 본 연구에서 나타난 높은 불안 수준과 높은 회피 수준을 보이는 두려움형의 세분화된 애착 유형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러한 이유는 불안정 애착의 하위 유형이 연구들마다 조금씩 다른 분포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몰입하고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관계 내에 소속되지 못하고 걸도는 것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신지옥, 방희정, 2006)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다음의 결과로 정상집단에서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간의 Pa 척도(편집증)에서 차이를 보였고 사후 검증 결과 두려움형이 안정형 애착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황경옥(2001)의 연구에서 두려움형 애착유형 사람들의 경우 자아정체감이 대체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오히려 타인에게 지배적-우월적, 경쟁적-공격적, 과시적-자기도취적 또는 반항적-불신적이 대인관계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편집증은 기질과의 관련성이 적고 양육방식이나 가족관계 등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Cloninger, 1999),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영향(이현우, 이훈진, 2006)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편집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이 낮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은 높았다(이훈진, 2002)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두려움형 애착이 편집증적 증상의 피해의식과 대인관계에서 민감성과 긴장, 예민한 기분이나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는 예민성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상집단에서 성인애착 유형 모두와 Pt 척도(강박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증 결과 안정형, 집착형, 거부형과 두려움형간의 애착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강박증은 이동우(2001)의 연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성격장애가 함께 동반하는 것으로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강박증 환자가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하며 정서적으로 높은 불안을 성격적으로 회피성 또는 의존성 특성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Pt 척도가 애착유형 중 두려움형과 다른 하위 애착유형간의 구분 짓는 매우 중요한 척도임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강박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애착유형의 차이는 이후의 치료방향과 계획수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정신병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상집단에서 성인애착 유형 모두와 Si 척도(내향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증 결과 안정형과 두려움, 안정형과 집착형, 안정형과 거부형, 집착형과 두려움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인애착 하위유형에서 안정형은 Si 척도 점수가 매우 낮고 그 이외의 나머지 집착형, 거부형, 두려움형에서 Si 척도가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Si 척도는 사회적 내향성과 사회적 접촉, 대인관계의 회피, 비사회성 등의 성격요인을 측정하는 것인데,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적 기술의 습득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적응에 실패하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적응의 실패는 신경증 증상과 정신병으로 발현하게 하고 발병하지 않더라도 결국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기도 한다. 안정형을 제외한 나머지 애착유형에서 Si 척도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 불안정 애착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둘째, 임상집단에서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간의 D 척도(우울증)에서 차이를 보였고 사후 검증 결과 두려움형이 안정형 애착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집단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모두 두려움형 애착이 우울증과 높은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MMPI에서 측정하고 있는 우울증상은 피검자가 느끼는 비관 및 슬픔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분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들과 가까워지면 왠지 편안하지가 않고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원하기는 하지만, 남들을 완전히 신뢰하거나 남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과 가까워지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되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사람이 더 많았으며, 밀착 욕구와 대인관계 분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권정혜, 2002)와 유사하다. 또한 우울증 집단은 정상집단보다 배우자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더 높으며 정서적 지지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증상은 이후의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권정혜, 2002)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모두에서 불안정애착 하위 유형인 두려움형 유형에서 우울증이 안정형과 특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임상집단에서 뿐만 아니라 정상집단에서도 불안정 애착유형과 우울증간의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상집단에서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집착형 애착간의 Pa 척도(편집증)에서 차이를 보였고 거부형과 두려움형 간에서도 편집증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 결과 두려움형이 다른 애착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정상집단에서도 두려움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Goldstein(1990)의 연구에 따르면 피해망상 집단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과 믿음은 가장 적게 느끼고,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많이 나타냈다. 피해망상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관련성은 초기의 의사소통 장애와 가족 간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정신분열증과 편집성 성격장애와 관련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임상집단에서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간에 Pt 척도(강박증)에서 차이를 보였고 사후 검증 결과 두려움형이 안정애착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Pt 척도는 자신의 책임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불안해 할 위험성이 있어 강박증을 겪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우주영, 2008). 불안장애의 핵심인 걱정증상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정적으로 따뜻하다고 느낀 경우와 유의하게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강성구, 신진희, 황유나, 이은정, 송상욱, 2008)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불안장애의 핵심증상인 걱정의 강도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애착유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다음 결과로는 임상집단에서 집착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간에 Sc 척도(정신분열증)에서 차이를 나타내었고 사후 검증 결과에서는 두려움형의 점수가 높았다. 이 결과는 정상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결과이며 불안정 애착이 Sc 척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열형 성격 대학생들 중 1/3이 우울, 과염려, 불안 및 사회적 위축과 고립 같은 분명한 신경증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양익홍, 이홍표, 최명구, 1997)가 있어 타인과의 친밀하고자 욕구와 그에 따른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치료에서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치료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애착, 증상과 대인관계적 기능 사이의 관련성을 96명의 정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서 애착불안이 높은 집단과 회피와 대인관계적 문제 사이의 관계성은 지지되었고 회피애착은 치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었다(Berry, Barrowclough, & Wearden, 2008). 그러므로 성인애착 유형은 정신병 환자에서 의미있는 개인차 변인이며, 치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정신병의 심각성 여부와 대인관계 문제, 증상의 중요한 예측이 됨을 시사한다.

임상집단에서 안정형 애착과 집착형, 두려움형 애착간의 Si 척도(내향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정상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고립이 집착형과 두려움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것에 비해 안정형 애착 유형에 가장 점수가 낮았고, 이 유형이 타인간의 의사소통과 관계를 다양하게 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안정형과 집착형, 두려움형에서 차이를 보여 대인관계에서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거나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Si 척도는 성격적, 신경증적 측면을 넘어서 정신병적 측면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유형과 분노표출과 알코올과 니코틴 중독과 관련된 외현화 장애와 행동화 증상과 자살행동에 관련된다는 연구(송수미, 현명호, 윤미숙, 2009; 이지영, 손정락, 2009; Maunder & Hunter, 2008; Stefani, Geiser-Elze, Hartmann, Horn, Winkelmann & Kronmuller, 2009)를 지지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를 지지하는 애착유형과 자기주장성(Psychopathic Deviate; 이하 Pd 척도)간의 차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신체형 환자는 정상집단보다 불안한 애착유형을 보였고, 불안한 애착은 부모, 정서적불안정성과 관련성이 있다(김용희, 송지영, 반건호, 김종우, 신용선, 2005)는 결과를 지지하는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 이하 Hs 척도)에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상집단에서는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간의 우울증, 편집증, 강박증에서 차이를 보였고, 내향성에서는 안정형과 다른 애착유형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임상집단에서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간의 우울증, 편집증, 강박증에서의

차이를 보였고, 정신분열증에서 집착형과 두려움형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편집증과 내향성에서는 안정형과 두려움형, 집착형의 애착유형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의의는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모두에서 D 척도, Pt 척도, Pa 척도, Si 척도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안정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간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 임상집단에서는 Sc 척도에서 애착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불안정 애착 유형중에서도 두려움형 애착유형이 정신병리적 성격특성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안정형 애착에서 Si 척도는 두드러지게 낮은 점수를 보여 치료전략을 세울 때 애착유형의 근거 의미를 시사한다. 그러므로 애착유형은 성공적인 심리치료의 좋은 예측인자가 되고, 심리치료를 위한 다른 지표들 중에서 중요한 준거가 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연구의 제한점은 한 학교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서 대표성이 다소 결여될 수 있으며 MMPI의 표준화 시점이 오래되어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애착이론은 심리치료 외에도 초기 애착경험에 따른 개인적 차이와 신경생화학 및 뇌 기질적 변화 등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도 수많은 과제가 있다.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에 참가비율의 증가, 입양, 비혼모 및 미혼모 출산 등 해로운 영유아-엄마관계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애착 이론에 따른 다양한 연구자료 축적과 활용의 과제가 남아있다.

## 참고문헌

- 권정혜 (2002). 우울증 환자의 역기능적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95-607.
- 강성구, 신진희, 황유나, 이은정, 송상욱 (2008). 소아의 걱정증상 및 애착 양상과 소아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가정의학회지**, 29(11), 854-866.
-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1989). **다면적 인성 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중술 (1996). **다면적 인성검사-MMPI의 임상적 해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용희, 송지영, 반건호, 김중우, 신용선 (2005). 신체형 환자의 애착특성. **신경정신의학**, 44(6), 700-707.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3.
- 문형춘 (2007). 성인애착 특성과 상담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09-634.
- 반건호 (2008). 애착이론의 과거, 현재, 미래. **대한의사협회지**, 51(5), 357-362.
- 송수미, 현명호, 윤미숙 (2009). Brennan에 의한 애착유형과 분노표현방식과의 관계. **스트레스 연구**, 17(1), 35-44.
- 신지옥, 방희정 (2006). 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 애착 회피와 애착불안의 상대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2006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달심리학회**, 278-279.

- 양익홍, 최명구 (1997). 대학생 정신병 경향성 집단의 다면적 인성검사 반응 특성. **교육심리연구**, 11(2), 255-289.
- 양익홍, 이홍표, 최명구 (1997). 분열형 성격 대학생의 MMPI 반응특성. **교육심리연구**, 11(3), 123-145.
- 오진아 (2007). **어머니의 성인애착 및 공감능력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우주영 (2008).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3), 409-428.
- 이지영, 손정락 (2009).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성인애착유형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7(1), 81-89.
- 이동우, 강용구, 류인균, 정도연, 조맹제, 우종인, 김용식, 권준수 (2001). 강박증 환자에서의 인격장애 공존병리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3), 434-441.
- 이현우, 이훈진 (2006). 경계형, 외현형 편집증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및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 임상**, 25(2), 449-465.
- 이훈진 (1999). 편집증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기개념과 추론편향. **한국심리학회: 임상**, 18(1), 1-15.
- 이훈진 (2002). 편집증 집단의 애착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의사소통. **한국심리학회: 임상**, 21(4), 791-807.
- 임영란, 안창일 (1997). 한국형 MMPI 내용척도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1), 131-150.
- 장휘숙 (1997). 청소년의 애착과 MMPI 하위척도들의 관계.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 16(2), 323-341.
- 황경옥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rry K, Barrowclough C., & Wearden A. (2008). Attachment theory: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ymptom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psychosis. *Behav Res Ther*, 46(12), 1275-82.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Cloninger (1999).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Washington, DC: APA.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Davies. K. A., Macfarlane G. J., McBeth J., Morriss R, & Dickens C. (2009). Insecure attachment style is associated with chronic widespread pain. *Pain*, 143(3), 200-5.
- Fonagy P., Steele H., & Steele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 of infant-mother at one year of age. *Child Dev*, 62, 891-905.



- Goldstein, M. J. (1990). Family relations as risk factors for the onset and course of schizophrenia.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J. Nuechterlein, &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al of psychopathology*. (pp. 408-42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lmes J. (1993).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New York: Routledge.
- Karen R. (1998). *Becoming attached: First relationships and how they shape our capacity to lo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ess, E. (1999). Discourse, memory, and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 note with emphasis on the emerging cannot classify categor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7(1), 4-11.
- Maunder R. G., & Hunter J. J. (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as determinants of physical health. *J Am Acad Psychoanal Dyn Psychiatry*, 38(1), 11-32.
- Merritt, R. D., & Balogh, D. W. (1994). A comparison of the MMPI and the psychosis proneness scales in their classification of normals controls for use in schizophrenia spectrum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2(2), 204-212.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5). Attachment theory and emotions in close relationships: Exploring the attachment-related events. *Personal Relationships*, 12, 149-168.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ions psychodynamic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 133-161.
- Stefini A., Geiser-Elze A., Hartmann M., Horn H., Winkelmann K., & Kronmuller K. T. (2009). *Psychother Psychosom Med Psychol*, 59(2), 68-74.
- Stepp S. D., Morse J. Q, Yaggi K. E., Reynolds S. K., Reed L. I., & Pilkonis P. A. (2008).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suicide-related behaviors. *Suicide Life Threat Behav*, 38(5), 592-607.
- Westen, D., Nakash, O., Thomas, C., & Bradley, R., (2006). Clinical Assessment of Attachment Patterns and Personality Disorder in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6), 1065-85.

## Personality Variation Depending on Attachment Types of Adults

**Woo, Ju-Young**

Korea Nazarene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Abstract>

Studies on the factors of psychopathology are constantly increasing. Especially attachment is required for babies to master development milestones. It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to lead a sound social life later. It is the representation of personality shap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pattern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explore if there is any personality variation depending on adult attachment.

MMPI is given to the subjects of 314 college freshmen, a normal group of 236 and a clinical group of 78. This study uses both the revised edition(Oh Jin-ah, 2007)of ECRS; 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Scales(Brennan, 1998) and Kim Young-hwan's version(1989). ANOVA study analysis is employed, and it explores the group variation. Scheffe analysis is also employed for post-hoc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normal group,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depression, paranoia, and psychasthenia between security attachment and fearful-avoidance attachment. Second, in the clinical group,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depression, paranoia, and psychasthenia between security attachment and fearful-avoidance attachmen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schizophrenia between preoccupation and fearful-avoidance. There also exist some differences in paranoia and social introversion between security, fearful-avoidance and dependance.

This study finds out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depression, psychasthenia, and social introversion between security attachment and fearful-avoidance attachment. In the clinical group, there are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attachment types. Among the insecurity attachment types, fearful-avoidance attachment type can be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ices for psycho-pathological personalities.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hat attachment types can play a great role in setting the therapy strategies.

**Key Words**

: attachment types, ECRS, personality

---

논문 접수: 2009. 8. 4    심사 시작: 2009. 8. 7    게재 확정: 2009. 9. 15

